

삼성전자, 'One UI 9' 업데이트 영상·보안·통역 등 AI 경험 확장

S26시리즈부터 순차 업데이트
'마이 팬캠·나우 너지' 등 눈길
온디바이스 AI 기반 위험 감지

삼성전자가 영상 속 원하는 인물을 인공지능(AI)이 자동으로 따라가는 '마이 팬캠'을 갤럭시 S26 시리즈에 적용한다. 사용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기능을 제안하고 개인정보 위험을 감지하는 기능도 추가하며 갤럭시 AI 경험을 확대한다.

삼성전자는 16일 국내에서 갤럭시 S26 시리즈를 대상으로 'One UI 9' 공식 업데이트를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글로벌 시장으로 업데이트를 확대하고 지원 기기도 순차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One UI 9은 안드로이드 17을 기반으로 한다. 삼성전자는 지난 5월 한국과 미국, 영국, 독일, 폴란드, 인도에서 S26 시리즈를 대상으로 베타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후 지난 7월 공개한 갤럭시 Z 시리즈 3종에 One UI 9을 적용했으며 이달에는 S25 시리즈와 Z 폴드7·폴립7등으로 베타 대상을 넓혔다. One UI 9은 개인 맞춤형 AI와 보안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 원하는 인물 찍으면 AI가 알아서 따라간다

이번 업데이트에서 눈에 띄는 기능은 마이 팬캠(My FanCam)이다. 촬영한 영상에서 원하는 인물을 선택하면 AI가 움직임을 따라가 화면 중앙에 맞춰준다. 아이의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처럼 움직임이 많은 영상에서도 별도 편집 없이 원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영상을 만들 수 있다.



One UI 9 마이팬캠 기능.

/삼성전자

'나우 브리프(Now Brief)'에는 자주 확인하는 정보를 직접 구성하는 '나만의 카드'가 추가됐다. 건강과 날씨, 영상 등 필요한 정보를 원하는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다.

'나우 너지(Now Nudge)'는 갤럭시 사용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기능을 제안한다. 메시지로 약속을 잡을 때 예약정보를 불러오거나 대화 중 공유된 위치를 저장하는 방식이다.

통역 기능에는 이전 대화 흐름을 확인하는 '스레드 뷰'가 추가됐다. 대화 모드의 번역 속도를 높이고 갤럭시 버즈를 이용할 때 번역 음성을 들려주는 시간도 줄였다.

'보증 및 케어(Warranty and Care)'에서는 보증 기간과 예상 수리비를 확인할 수 있다. 자가 진단과 삼성케어플러스 관리, 서비스센터 예약도 한곳에서 할 수 있다.

◆ 개인정보 위험 감지… AI 변조 음성도 분석

삼성전자는 One UI 9에서 보안 기능

도 강화했다. '시큐리티브리프(Security Brief)'는 악성 앱과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불필요한 권한 사용 등 보안·개인정보 문제를 주기적으로 요약해 보여준다.

온디바이스 AI 기반 '개인정보 보호 알림(Privacy Alerts)'은 불필요한 권한 접근 시도 등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감지해 사용자에게 미리 알려준다.

악성 앱 대응 범위도 넓어졌다. 삼성전자는 2024년부터 One UI 6.1 이상 갤럭시 기기에서 피싱 앱 설치를 차단해왔다. 삼성전자 뉴스룸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One UI 9에서는 악성 앱으로 확인된 앱의 실행까지 차단하고 삭제할 권고한다.

보이스피싱 대응도 강화했다. 삼성전자 자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 알림'은 일본과 캐나다, 인도 등으로 지원 국가를 확대한다. 국내에서는 상대방 목소리의 AI 변조 여부를 분석해 조작 징후가 감지되면 팝업과 알림음, 진동으로 사용자에게 경고한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metro

김현제 원장 “AI·DX 전력수요 대응 시급”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세미나

글로벌 에너지 시장 현안 논의

국내의 전문가들이 지정학적 갈등과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려면 에너지 안보 정책을 가격과 물량 중심에서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과 안정적인 전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17일 개원 40주년을 맞아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에너지·기후·번영의 미래를 그리다'를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러시아산 가스의 유럽 공급 중단 등 글로벌 에너지 시장이 직면한 위험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현제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기후변화 대응, 지속적인 번영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과제"라며 "지정학적 불안과 인공지능·디지털 전환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할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조연설에 나선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은 에너지 안보를 좌우할 핵심 기준으로 공급망에 대한 '신뢰'를 제시했다. 비롤 사무총장은 "오늘날 에너지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석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이 17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에너지경제연구원 창립 40주년 기념 정책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유나 가스, 우리늄, 리튬이 아니라 신뢰"라며 "각국은 가격뿐 아니라 공급자가 신뢰할 수 있는 상대인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호르무즈 해협에 집중된 에너지 공급 구조를 완화하는 것이 우선 과제로 제시됐다. 토시유키 사카모토 일본에너지경제연구소(IEEJ) 총괄이사는 에너지 조달처와 수송 경로를 다변화하고 비축을 확대해야 하지만, 시장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카모토 이사는 "석유비축 확대와 우회 수송로 확보, 핵심광물의 대체 공급망 구축을 위한 강력한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관희 기자

한화에어로, 아리온스멧 등 무기 무인화 속도

K9·천무 등 유무인복합 기술 적용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우리군 최초의 다목적무인차량 아리온스멧을 앞세워 지상무기 무인화에 속도를 낸다. 오는 2030년까지 소형부터 대형까지 무인지상차량 라인업을 갖추고 K9 자주포와 천무 등 기존 주력 무기에도 유무인 복합 기술을 적용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다목적무인차량 '아리온스멧(Arion-SMET)'의 생산 체계 구축·가동 계획과 지상방산 무인화 로드맵을 공개했다고 17일 밝혔다.

아리온스멧은 지난 4일 방위사업청과 양산계약을 체결했다. 내년부터 육군과 해병대 보병부대에 순차 납품된다. 천무와 천궁-II, L-SAM 발사대 등을 생산하는 창원사업장에서 양산한다.

아리온스멧을 시작으로 오는 2030년까지 소형·중형·대형 무인지상차량(UGV) 공통플랫폼 6종을 확보한다. 10t 미만 다목적무인차량과 20t 미만 궤도형 로봇전투차량(T-RCV), 30t급 대형 무인전투차량(H-UGV) 등이 포함된다.

기존 유인 무기체계의 유무인 전환도 추진한다. K9과 천무, 차세대 보병전투장갑차를 필요에 따라 무인으로 운용할 수 있는 선택적 유무인체계로 오는 2029년까지 전환한다는 목표다. 120mm 자주박격포와 상륙돌격장갑차(KAAV), 한국형 공병전투차량(K-CEV) 등에도 유무인 복합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다.

무인체계 개발 범위도 넓히고 있다. 폭발물 탐지제거로봇은 현재 양산 중이다. 무인수색차량과 드론·로봇을 탑재한 AI 기반 K-CEV, 유무인 복합 화생방정찰차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다.

해외시장도 공략한다. 아리온스멧은 루마니아와 핀란드, 캐나다 등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김동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S사업부장은 "최고의 생산체계 구축을 통해 대한민국 군과 우방국이 필요로 하는 무인차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고, 선제적으로 미래 전장에 대비한 국방 무인체계 선도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기술 확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유혜온 기자 dhalehale

효성중공업

HVDC 국산화 설비 선택

효성중공업이 한전의 대용량 전압형 초고압직류송전(HVDC) 국산화 사업에 투입할 핵심 설비를 공개했다. 독자 개발한 밸브와 제어기를 앞세워 대용량 전력망 구축에 필요한 HVDC 기술 자립에 나선다.

효성중공업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2026 대한민국 에너지대전'에서 자체 개발한 HVDC 밸브와 제어기 등 핵심 설비를 선보였다고 17일 밝혔다.

밸브와 제어기는 전압형 HVDC의 성능과 안정적인 운전을 좌우하는 핵심 설비다. 컨버터 밸브는 전력반도체를 이용해 교류(AC)와 직류(DC)를 변환한다. 제어기는 전력의 크기와 방향을 조절하고 계통 이상 발생 시 전력망을 보호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다른 차세대 전력 솔루션도 소개했다. AI 기반 전력설비 자산관리 플랫폼 'ARMOUR+'와 자전력 변성기(LPIT), 무효전력보상장치(STATCOM), 전력반도체 기반 솔리드스테이트변압기(SST), 수소연전발전기 등을 선보였다.

효성중공업 관계자는 "핵심 전력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해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등 국내 대용량 전력망 구축을 뒷받침하고 글로벌 HVDC 시장에서도 수출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혜온 기자

한화, 글로벌 대공망 사업 박차

UAE 국영방산기업 JV 설립 추진
중동·제3국 방산시장 공략 본격화

한화아바타에미리트(UAE) 최대 국영 방산기업 에지(EDGE)그룹과 현지 합작법인(JV) 설립을 추진하며 UAE 통합대공망 구축과 중동·제3국 방산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

17일 한화시스템에 따르면 양사는 지난 15일(현지시간) UAE 아부다비 에지 그룹 본사에서 UAE 통합대공망 구축사업을 위한 주요조건합의서(Term Sheet)를 체결했다.

합의서에는 통합대공망 구축을 위한 무기체계 도입 방향과 단계별 검토 사항이 담겼다. 양사는 양국 정부의 방산 협력 방향에 맞춰 세부 사업을 구체화하고 필요한 정부 승인과 협의 절차를 거쳐 현지 합작법인 설립과 생산·사업 운영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UAE 내 방산 생산과 유지·보수 역량을 높이기 위한 현지화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한화는 중동 지역에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체계 '천궁-II'의 다기능레이더와 발사대·발사관·탄 구성품 등을 공급하며 대공방어 분야에서 사업 기반을 확보해 왔다. 2022년 UAE를 시작으로 2024년 사우디아라비아, 2025년 이라크에 한화



양기원 한화시스템 대표(왼쪽)와 하마드 알 마라르(Hamad Al Marar) 에지 그룹 CEO가 지난 15일(현지 시간) UAE 아부다비 에지그룹 본사에서 통합대공망 구축사업에 대한 주요조건합의서를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한화

시스템의 다기능레이더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발사대·발사관·탄 구성품 등을 공급했다.

한화는 에지그룹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통합대공망 사업의 참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장거리·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체계를 중심으로 대드론체계(C-UAS)와 단거리 방공체계를 연계하고 천무 다연장로켓을 비롯한 지상무기체계와의 연동도 추진한다. UAE는 한화의 중동 및 제3국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된다. UAE의 산업 기반과 한화의 방산 기술을 결합해 현지 사업을 확대하고 이를 토대로 글로벌 시장에서 공동 사업 기회를 발굴할 예정이다.

/원관희 기자 wkh@

LG전자, '구독이득' IMC 캠페인 전개

(전방위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LG전자가 전문가의 정기적인 관리를 앞세워 가전 구독 서비스의 차별화된 가치 알리기에 나선다.

LG전자는 오는 11월까지 3개월간 전방위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IMC)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가전 구독을 단순히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 아닌,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방문해 제품을 관리하는 서비스라는 점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가전은 전문가에 받는 구독이 득이라는 메

시지를 통해 가전을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 전문가에게 지속적으로 관리받는 구독의 이점을 고객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전달한다.

이를 위해 영상 등 콘텐츠에 내시경 카메라 점검, 직수·고압 세척, 스팀 살균, 기계실 분해 세척, 제품 코팅·광택 등 전문 장비를 이용한 케어 서비스부터 무상 AS·철거·재설치, 정품 소모품 교체까지 구독 미이용 고객들이 그간 알지 못했던 전방위 서비스의 모습을 자세히 담았다.

/차현정 기자 hyeon@